

2023. 5. 24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

자원순환과장	최철웅	2133-367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재활용기획팀장	정삼모	2133-3690
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당자	김효은	2133-3684
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관련 누리집 (메뉴)
----------------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### 서울시신성통상 재활용 선별시설 직원에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기부

- 24일(수), 송파구 자원순환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전달식
- 재활용 선별시설·SR센터 등 24개 업체 직원에 1,000벌 기부·4천만원 상당
- 서울지역 수거 페페트로 의류 생산·자원순환 기여,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
- 시, 커피박, 봉제원단, 폐현수막 등 다양한 폐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할 것

서울시는 신성통상과 함께 재활용 선별시설 및 서울도시금속회수(SR, Seoul Resource) 센터 등 24개 업체 종사자들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여름옷을 기부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신성통상이 기부한 의류는 ‘탐텐 에코리아’ 반팔 티셔츠 1,000벌로, 총 4천만원 상당의 제품으로, 서울지역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섬유 ‘리젠서울’로 제작했다.

○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효성티앤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역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재생원료로 사용한 ‘리젠서울’ 원사를 생산했으며, 8월에는 신성통상과 ‘리젠서울’로 의류를 제작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.

- 의류 전달식은 24일 송파구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김권기 서울시 자원 회수시설 추진단장, 양명아 신성통상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.
  -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신성통상 간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 선순환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이번이 세 번째 기부활동이다.
  - 신성통상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관악구 수재민을 위해 5천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내의를 기부하였으며, 11월에는 재활용 현장 종사자에게 4천만원 상당의 에코 플리스 1,000벌을 기부한 바 있다.
  
- 서울시는 투명페트병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 중이며,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사물인터넷(IoT) 기반 페트병 무인회수기,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, 투명페트병-종량제봉투 교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.
  
- 시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한편, 시는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외에도 커피박, 봉제원단, 폐현수막 등 다양한 폐자원을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  -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서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전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구·SK지오센트릭과 함께 폐현수막 화학적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

□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“이번 기부는 서울시와 기업이 협력해 폐자원의 선순환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, 지난겨울에 이어 재활용 현장 직원들을 위해 여름옷을 기부해준 신성통상에 감사드린다”라며 “고품질 재생섬유 생산을 위한 양질의 투명페트병이 수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기부 의류 및 기부식 사진 각 1부. 끝.

붙임

## 기부 의류 전달식 사진(23. 5.24.)



사진설명: (좌측부터) 양명아 신성통상 마케팅 총괄상무, 김수광 KC에코사이클 대표이사,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